

다문화교육에서의 계급 문제

장 원 순 (공주교육대학교)

I. 서 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다문화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다문화교육관련 문헌을 검토해 보면 한국 다문화교육은 결혼이민자나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그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영자, 2007: 203-208, 224). 이러한 경향은 문화를 단지 국가나 민족, 인종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문화를 다소 협소하게 바라보는 문제를 갖는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문화를 미시적으로, 역동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형성되고 있다(장원순, 2006). 그러나 사실 문화를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다문화교육의 근본적 시각이기도 했다(Banks, 2007: 14). 즉 벅크스는 집단성원자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적, 인종/종족성, 종교, 예외성(exceptionality), 사회계급, 성(gender)을 들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문화집단을 구분하는 선은 인종이나 민족, 국적뿐만 아니라 계급, 종교, 성, 예외성(장애/영재) 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문화교육의 한 차원으로 이러한 문화집단들 간의 평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계급도 인종이나 종족, 국가와 같이 다소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인 문화집단으로 다루어져야 하는가?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계급은 하나의 독립적인 문화집단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계급은 일반적으로 크게 구분되는 상위계급, 중간계급, 하위계급, Karl Marx가 구분한 자본가계급, 소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그리고 Erik Olin Wright가 구분한 12개의 계급¹⁾ 등으로 상호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상위계급은 중간 및 하위계급을 전제로 형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간 관계를 전형적으로 나타낸 말이 ‘너의 임금은 나의비용이다.’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상호 구분되면서도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계급을 다문화교육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필자는 다문화교육에서 계급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계급 간 상호 구분성에 주목하는 접근법과 계급간 상호연관성에 주목하는 접근법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문화교육에서 계급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 즉 상호 구분되는 독립된 집단으로 다루는 접근법과 상호 연관성 있는 집단으로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고, 문화집단으로서의 계

1) 에릭 올린 라이트는 자본재, 자격기술재, 조직재를 기준으로 계급을 12개 즉 자본가, 소자본가, 프티부르주아, 전문경영자, 반전문경영자, 비전문경영자, 전문관리자, 반전문관리자, 비전문관리자, 전문노동자, 숙련노동자, 노동자로 구분하였다(신광영 외, 2003: 18-19).

급개념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자보다는 후자를 보다 강조하여 계급을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함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그 안에서의 계급 문제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다루는 첫 번째 접근법과 그 한계를 다루고 제4장에서는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다루는 두 번째 접근법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가 다문화교육일반에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세계화와 다문화상황의 형성 그리고 계급

1. 세계화와 이주,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형성

교통·통신의 발달, 정치적 장벽의 와해로 인하여 전 지구적 상호작용이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 즉 이제 지구촌 한 구석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의 정도는 증가하고 있다. 이를 기든스는 세계화라고 부른다(Giddens, 2001: 70). 세계화의 한 현상으로 지구촌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Castles와 Miller(2009)는 현대를 이주의 시대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Bauman은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유동성을 들고 있다.

Castles와 Miller(2009)는 현대의 이주와 연관된 경향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즉 ① 이주의 글로벌화, 즉 이주의 다양화라고 흔히 지칭되는 현상이다. ② 이주의 가속화, 즉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이주의 차별화, 즉 입국유형과 방식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이주의 여성화, 즉 남성과 비교해볼 때 더 많은 비율의 여성이 이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 이주의 정치화, 이는 이주가 글로벌 정치논쟁 및 국가적 정치논쟁의 중심적 주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⑥ 이주의 환승(지) 증가, 즉 폴란드와 한국처럼 오랫동안 송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일부 국가들이 이제 (이주)환승국가 혹은 영구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바뀌고 있다(Samers, 2013: 51).

다음의 통계자료는 OECD국가에 이주자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Samers, 2013: 56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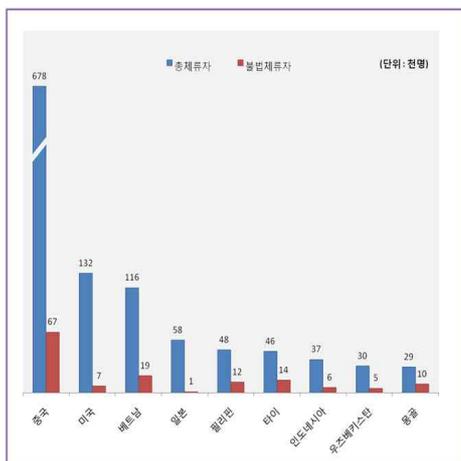
[<표 1> 주요 OECD 국가의 이주통계]

| 국가 | 1996 | 1999 | 2002 | 2005 |
|--------|--------|--------|--------|--------|
| 오스트렐리아 | 4258.6 | 4373.8 | 4565.8 | 4829.5 |
| 오스트리아 | - | 872.0 | 873.3 | 1100.5 |
| 벨기에 | 999.2 | 1042.3 | 1151.8 | 1268.9 |
| 캐나다 | 4971.1 | 5233.8 | 5568.2 | 5895.9 |
| 체코 | - | 455.5 | 471.9 | 52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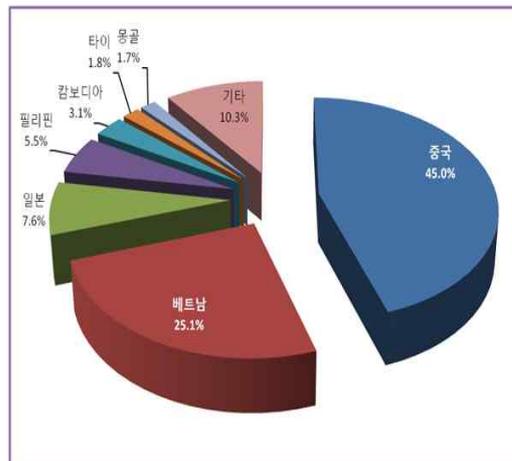
| | | | | |
|-------|--------|--------|--------|--------|
| 덴마크 | 265.8 | 296.9 | 331.5 | 350.4 |
| 핀란드 | 111.1 | 131.1 | 152.1 | 176.6 |
| 프랑스 | - | 4306.0 | 4575.6 | 4926.0 |
| 독일 | 9708.5 | 10172 | 10527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283.9 | 289.3 | 302.8 | 331.5 |
| 아일랜드 | 251.6 | 305.9 | 390.0 | 486.7 |
| 이탈리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 130.9 | 141.9 | 147.0 | 152.1 |
| 네덜란드 | 1433.6 | 1556.3 | 1714.2 | 1734.7 |
| 뉴질랜드 | 605.0 | 643.6 | 726.3 | 796.1 |
| 노르웨이 | 246.9 | 292.4 | 333.9 | 380.4 |
| 포르투갈 | 529.0 | 518.8 | 699.1 | 661.0 |
| 스웨덴 | 943.8 | 981.6 | 1053.5 | 1125.8 |
| 스위스 | 1509.5 | 1544.8 | 1658.7 | 1772.8 |
| 영국 | 4131.9 | 4486.9 | 5075.6 | 5841.8 |
| 미국 | 27721 | 29592 | 35312 | 38343 |

출처: OECD/SOPEMI(2007b: 330)

그렇다면 한국사회로의 이주상황은 어떠할까? 2011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총 139만 5077명으로 이중에서 합법체류자는 122만 7297명이고 불법체류자는 16만 7780명이다(출입국관리소 통계자료). 이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순이다. 그리고 체류자격에 따라 분류하면 총 59만 5098명 중 전문 인력은 4만 7774명이고 단순기능인력은 54만 7324명으로 많은 부분 단순기능인력에 해당한다(출입국관리소 통계자료). 그리고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민을 사람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총 14만 4681명이며 주요 입국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이다(출입국관리소 통계자료).



[<그림 1> 한국 체류 외국인통계]



[<그림 2> 결혼이민자 국적 통계]

이주는 각 국가로 이전과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유입시켜 한 국가를 다문화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 즉 한 국가 안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인종, 민족, 국가의 사람들이 동일 시공간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질적인 삶의 방식은 당황스러움에서 정서적 혼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다문화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 이주와 자본주의 그리고 국제 및 국내 계급 불평등 현상

국제 이주가 증가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자본주의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화는 축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장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싼 원료의 수입과 거대한 시장의 확보하는 측면, 즉 주로 선진국 자본가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련된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이른바 부를 향한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 부가 일부 선진국으로 집중되고 대다수의 많은 국가들은 빈곤하게 되었다. Martin과 Schumann(1997)은 이를 20:80사회라고 부른다. 즉 20%의 부국이 80%에 해당하는 부를 가지고 있으며, 8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20%에 해당하는 부를 나누어 가져야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각종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유엔에서 발간된 인간개발보고서는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세계인구1/5의 평균소득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1/5의 평균소득보다 74배 더 크다. 1990년대 말 세계인구의 20%가 세계 전체소비의 86%를 차지했고, 82%의 수출시장과 74%의 전화회선을 차지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0명이 1994년과 1998년 사이 재산 가치를 두 배로 늘렸다. 세계3대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합친 것은 모든 저개발국가의 국민총생산과 거기에 살고 있는 6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컸다(UNDP 1999m Giddens,2001: 85 재인용). 그리고 헬싱키에 있는 세계개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최상위 1%의 부자들의 부의 총합은 하위 505에 속한 사람들의 부의 총합보다 거의 2000배나 된다(Bauman, 2013: 18).

이렇게 싼 원료의 수입과 거대한 시장의 확보하려는 선진국 자본가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이주를 나는 제1차적 이주라고 부르려고 한다. 이러한 1차적 이주의 결과 세계 여러 국가간 불평등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1차적 이주가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노동력의 이주가 발생한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국민의 이해 합의에 의한 것이다. 선진국은 값싼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위해, 후진국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를 2차적 이주라고 부르려고 한다. 2차적 이주를 통하여 선진국에는 내국인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한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은 그 사회의 계급구성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보여주듯이 이주한 사람들의 계급은 대체로 하위 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에서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75.2%에 해당한다. 여성

의 경우 88.2%에 해당한다.

[<표 2> 외국인노동자의 월평균임금분포]

| 월평균 임금수준별 | 2012 | | |
|----------------|-------|-----|-----|
| | 임금근로자 | 남자 | 여자 |
| 계 | 759 | 503 | 256 |
| 100만원 미만 | 52 | 15 | 37 |
| 100만원~200만원 미만 | 519 | 330 | 189 |
| 200만원~300만원 미만 | 143 | 122 | 22 |
| 300만원 이상 | 45 | 36 |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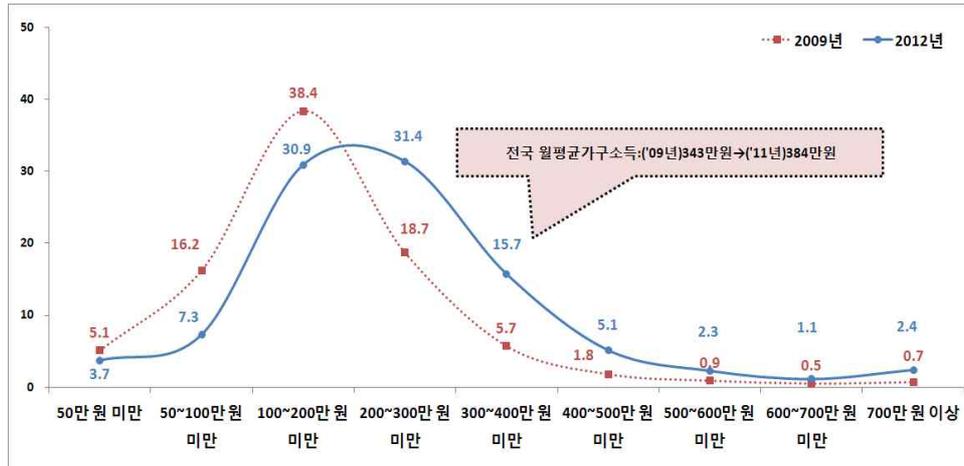
직업별로 살펴볼 때 외국인 노동자는 많은 부분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많은 부분 노동자계급에 속한다.

[<표 3> 외국인노동자의 직업분포]

| 직업별 | 2012 | | |
|---------------------|------|-----|-----|
| | 취업자 | 남자 | 여자 |
| 계 | 791 | 518 | 274 |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91 | 56 | 35 |
| 사무종사자 | 20 | 11 | 9 |
| 서비스·판매종사자 | 87 | 25 | 62 |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24 | 17 | 7 |
|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330 | 275 | 55 |
| 단순노무종사자 | 239 | 134 | 105 |

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거주비율이 2009년 59.7%에서 2012년 41.9%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결혼이민자의 월평균가구소득]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율은 2009년 14.8%에서 2012년 18.9%로 증가하였으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단순노무직 비율은 21.6%에서 2012년 29.9%로 질이 낮은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의 요인으로 언어문제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표 4>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2009, 2012년)]

(단위: %)

| 구분 | 힘든 점 없음 | 외로움 | 가족 간의 갈등 | 자녀 양육 및 교육 | 은행, 법원 등 기관 이용 | 경제적 어려움 | 언어 문제 | 생활방식, 관습 등 문화차이 | 편견과 차별 | 음식 | 기후 차이 | 기타 |
|------------|---------|------|----------|------------|----------------|---------|-------|-----------------|--------|-----|-------|-----|
| 2009년 실태조사 | 12.9 | 9.6 | 3.3 | 13.5 | - | 21.9 | 21.7 | 7.1 | 3.9 | 2.4 | | 3.7 |
| 2012년 실태조사 | 15.8 | 14.2 | 3.0 | 7.0 | 2.1 | 19.8 | 21.1 | 6.5 | 7.0 | 2.0 | 0.6 | 0.8 |

주: 1) 2012년 실태조사 결과는 1~3순위까지 선택하는 복수응답으로 여기서는 2009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1순위 분석결과만을 사용함.

2) 2009년 조사에서는 '음식기후'가 한 항목으로 되어있는 반면, 2012년에는 '음식'과 '기후 차이'가 각각의 항목으로 되어 있음.

Ⅲ. 다문화교육에서 계급 문제를 다루는 접근법1

: 계급을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접근법

1. 계급을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다문화교육접근법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계급을 하나의 상호 구별되는 독립적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는 Banks(2007: 20-22)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차원 5가지, 즉 내용통합, 지식구성, 편견감소, 평등교수법, 효능감 있는 학교문화만들기 중에서 주로 내용통합, 편견감소를 강조하고 지식구성, 평등교수법, 효능감 있는 접근법을 소홀히 다루는 것이다.

먼저 내용통합 차원의 경우 즉 교육에 있어서 상위 및 중간계급의 삶을 교육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의 관점과 시각 등을 함께 제시하여 서로 다른 계급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르디외의 저서에 나타난 내용을 활용하여 직공장, 숙련공, 기능공, 단순노동자, 농업노동자는 모험소설, 지방신문을 읽기를 좋아하고, 낚시와 시장축제에 가기를 좋아하며, 축구와 럭비, 공개파티를 좋아하지만, 대학교수와 예술가, 중등교사는 오페라와 전람회에 가리를 좋아하고 르몽드와 정치평론지, 철학에세이 등을 읽으며, 음악가로는 바흐를, 문학가로는 브레히트를, 예술가로는 칸딘스키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부르디외, 2005: 238-239). 즉 계급에 따라 삶의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편견감소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계급별 삶의 방식에 차이에 근거하여 이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하위계급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또 자신보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입은 옷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하는 것이다.

2. 계급을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다문화교육접근법의 한계

계급을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다문화교육접근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계급은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인 문화집단의 속성과 더불어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연관성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즉 계급들 간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계급 개념에 따르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계급은 상호 구분되는 측면도 있지만 상호 관련되어 있다. 즉 대표적으로 상위계급이 보다 많은 부를 독점한다면 당연하게 하위계급은 부를 적게 소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계급은 서로를 전제로 형성된 개념이기도 하다. 즉 하위계급이 있어야 상위계급이 있는 것이며, 부르주아가 있

어야 프롤레타리아트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너의 임금은 나의 비용이다.’ 라는 말은 이들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계급을 마치 구별되는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것은 개념의 속성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급의 독특한 특성과 더불어 이들의 관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계급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단지 수용할 뿐, 다소 무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를 자연과의 대면 속에서 순수하게 형성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더 나아가 문화는 상대적이므로 특정한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가치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에 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최근 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달라졌다. 즉 문화 속에는 지배와 복종과 같은 권력 관계가 개입되어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기보다는 유동하고 가변적이라는 것이다(김광억, 1999: 11-12).

셋째는 계급을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본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문화 다양성을 교육이 단지 관리해 줌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봉사한다는 것이다. 즉 자본축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세계화의 부산물, 즉 다문화현상을 다루기 위한(관리하기 위한) 선에 멈추는 다문화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Semprini는 이러한 다문화정책을 기업다문화주의라고 부른다(Semprini, 2010: 175-178).

IV.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다루는 접근법 2

: 계급간 관계를 다루는 다문화교육 접근법

1. 계급을 상호 연관된 집단으로 다루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앞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계급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집단이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하위계급의 어려움은 많은 부분 상위계급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첫째, 계급은 상호 구별되는 독립적인 문화집단이 아니므로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다룰 때는 계급을 상호 구별되는 독립적 측면과 더불어 이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계급을 계급의 속성에 맞게 가르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지구촌 사회에서의 계급의 문제가 단지 국내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다룰 때는 국내와 더불어 지구촌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다룰 때는 Banks가 제시한 지식구성, 평등교수법, 효능감 있는 학교문화만들기, Grant & Sleeter가 제시한 인간관계접근법, 단일집단연구접근법, 다문화교육접근법, 다문화사회정의접근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다문화교육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문화 다양성을 단지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평등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계급을 상호 연관된 집단으로 다루는 다문화교육접근법

가. 다문화교육목표에서의 변화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상호 연관된 집단으로 다루려고 할 때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는 기존의 다문화교육목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와 몇몇 활동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Bennett이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Bennett, 2007: 32-33).

[<표 5> 다문화교육의 목표[Bennett, 2007]

| 목표 | 주요 내용 | 핵심 가치 |
|-------------------------------------|--|--|
| 다중적인 역사적 관점 개발 | 과거와 현재의 세계 사건들은 여러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중요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의 관점을 적용하는 능력 | 문화다양성의 인정과 수용, 인간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하나의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에 대한 경의(존경)심 |
| 문화적 인식 강화 | 개인들은 다른 국가 및 다른 종족집단의 구성원과는 크게 다른, 공유되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 또는 앎. 세계의 인간사회에서 발견되는 관념 및 실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국가와 종족집단의 구성원에게 어떻게 인식될지에 대한 이해 | |
| 간문화적 능력 증진 | 자신의 것과는 다른 문화스타일의 관행들, 몇몇 무의식적 단서들(신체언어), 의도적인 의사소통(언어, 표시, 제스처)을 해석하는 능력. | |
| 인종차별, 성차별, 그 외 다른 편견과 차별에의 도전 | 국가 및 세계 내에 존재하는 개인적, 제도적, 문화적 인종차별 및 성차별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현재의 증거들을 인식하고 이에 기반하여 반-인종차별, 반-성차별주의적 행동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 | |
| 지구와 전 지구적 역동성에 대한 인식 | 세계란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극적인 효과와 결과들을 가져오는 상호 연관된 거대한 생태계임을 아는 것 | |
| 사회적 행위 기능 형성 | 인간의 복지와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 태도 그리고 행동들을 발전시키는 것. | |

즉 베넷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로 인종, 성차별 그 외 다양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도전, 문화적인식의 강화, 간문화적 능력증진, 다중적인 역사적 관점 개발, 전 지구적 역동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행위기능형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들에 포함된 그 핵심적 가치로 문화다양성의 인정과 수용, 인간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하나의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에 대한 경의(존경)심을 제시하고 있다(Bennett, 32-33).

다문화교육에서 계급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첫째, 인종, 성차별 그 외 다양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도전에서 인종차별, 성차별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계급간의 차별과 억압 그리고 착취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인식 강화에서는

계급 간 삶의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러한 차이들이 계급 간에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간문화적 능력증진에서는 계급 간 다른 문화스타일, 무의적 단서들, 의도적 의사소통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중적인 역사적 관점 개발에서는 계급문제를 상위계급뿐만 중간계급, 하위계급의 시각에서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 지구적 역동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세계화 현상에 포함된 자본주의 문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 불평등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행위기능 형성에서는 인간의 복지와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주요 문제들에 불평등, 계급문제를 포함시키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행동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다문화교육내용상의 변화

다문화교육에서 계급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내용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 또한 강조점의 차이와 몇몇 활동을 부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강조점의 차이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교육내용체계를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장원순, 2010).

[<표 6> 다문화교육의 내용체계]

| | 1차 개념 | 2차 개념 | 3차 개념 |
|----------------|-----------------|---|---|
| | 다문화 교육 내용 | 문화다양성 (cultural diversity) | 문화 |
| 다양성 | | | 인종, 민족, 계급, 지역, 종교, 성, 세대, 전통, 국가, 예술, 대중, 과학 |
| 간문화적 상호작용 | | | 이해, 존중, 협력, 승인, 관용, 인정/ 차별, 편견, 억압, 불평등/ 동화, 변형, 상호학습, 발전 |
| 통합성 (unity) | 인권 | 인간 존엄권, 생명권, 정의권, 평등권 자유권(거주이전, 종교, 사상, 언론, 학문, 양심, 출판), 참정권(피선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사회권(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건강권), 문화권 | |
| | 민주주의 | 인민주권,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 대화와 토론, 합의, 관용, 존중, 공공선, 정치과정, 정치참여 및 문제해결, 법치주의(적법절차) | |

즉 서강식, 장원순은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1차적으로 문화다양성과 통합성으로 나누고, 2차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문화, 다양성, 간문화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고 통합성을 인권과 민주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3차적으로 문화, 다양성, 간문화적 상호작용, 인권, 민주주의의 하위개념들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교육에서 계급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 다문화교육내용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부가되어야 하는가? 첫째, 계급문화를 다름에 있어서 계급문화 그 자체와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계급 간 관계, 상호작용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강조된다. 즉 계급 간 관계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는 계급 간 이해, 존중, 협력, 승인, 관용을 다루는 것이다. 둘째는 계급 간 동화, 변형, 상호학습, 발전의 다루는 것이고, 셋째는 계급 간 상호작용의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계급 간 차별, 편견, 억압, 불평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계급 간 불평등 문제와 착취, 억압, 종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인권에서는 자유권과 정의권을 통하여 경제적 종속, 부자유, 착취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을 통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위계급이나 착취당하는 계급구성원의 권리와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권을 통하여 적정 임금과 쾌적한 근로환경을 보장받고,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의료보험과 연금제도를 통하여 삶의 안정성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다문화교육방법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상호 연관된 집단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Banks(2007a)는 다문화교육의 차원을 내용통합, 지식구성, 평등교수법, 편견감소, 효능감 있는 학교문화 5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Grant & Sleeter(2007)는 예외 및 문화차이교수접근법, 인간관계접근법, 단일집단접근법, 다문화교육접근법, 다문화사회정의교육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상호 연관된 집단으로서의 계급 문제를 다루기 적합한 다문화교육 차원은 지식구성, 편견 감소, 평등교수법, 효능감 있는 학교문화 만들기이며 다문화교육접근법은 인간관계접근법, 단일문화연구접근법, 다문화교육접근법, 다문화사회정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구성에서는 하위계급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들이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다룰 수 있다. 그리고 편견감소에서는 하위계급이나 상위계급, 노동자계급에 대한 잘못된 편견 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 즉 노동자 계급은 게으르다는 생각이 때로는 평가자가 속한 문화가 과도한 노동을 강조하는 관점 때문일 수 있으며, 자본가계급은 다 착취적이라는 생각이 때로는 잘못된 것일 수 있음, 즉 건전한 근로와 노력으로 부를 이룬 자본가도 많이 있음을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평등교수법에서는 하위계급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삶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헤드 스타트(Head Start) 운동을 시행하고, 교사로 하여금 하위계층학생에게도 높은 학업성취 기대를 하도록 할 수 있다(Persell, 2006: 100-101). 효능감 있는 학교문화 만들기에서는 집단구성과 스포츠 참여, 학교문화형성에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Grant & Sleeter의 인간관계 접근법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강조하고, 만약 학생들이 인종, 계급, 성 그리고 장애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사회는 더 평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계급문제에 적용하면 인간관계접근법에서는 계급 간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며, 보다 계급 간 평등을 이루기 위한 방안, 즉 계급 차별과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Grant & Sleeter, 2007: 68). 단일집단연구 접근법에서는 특정계급집단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억압을 받았으며, 그 사회에 대한 그들의 성취, 즉 기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검토하는 것을 도와 줌으로써 하위계급 또는 착취당하는 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단일집단연구 접근법에서는 학교 지식이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중상위계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은 하위 계급 또는 착취당하는 계급의 역사와 관점, 그리고 세계관을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하나의 특정 계급에 초점을 맞춘다(Grant & Sleeter, 2007: 69-70). 다문화교육접근법에서는 하위계급 또는 착취당하는 계급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모든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른 계급들 간의 동등하게 권력이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Grant & Sleeter, 2007: 70-71). 다문화사회정의접근법에서는 계급에 기반한 억압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다른 접근법들보다 직접적으로 다룬다. 다문화사회정의 접근법의 목적은 미래의 시민들이 사회가 모든 계급의 이해관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사회재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재건주의는 인종, 계급, 성 그리고 장애자에게 보다 많은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를 재구성하고자 노력한다(Grant & Sleeter, 2007: 72). 이를 위하여 다문화사회정의접근법에서는 4가지 교육적 실천을 할 수 있다. 첫째는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실천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그들의 삶의 환경에 존재하는 제도적 불평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셋째, 학생들에게 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는 법을 가르친다. 넷째, 다양한 피억압집단들이 서로 연대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 결과 피억압집단은 그들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은 억압에 맞선 투쟁에 힘을 주고, 이를 보다 강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Grant & Sleeter, 2007: 72-73).

V. 결 론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는 계급을 상호 구분되고 독립적인 집단으로 다루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상호연관성을 가진 집단으로 다루는 방법이다. 전자는 계급에 따른 서로 다른 삶의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계급 간 상호연관성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다문화교육이 단지 자본주의가 초래한 문화다양성을 단지 관리하는 측면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계급간의 착취와 억압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함으로써 계급 간 갈등을 간과하는, 지속시키는 문제가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다룸에 있어서는 지식구성, 평등교수법, 효능감 있는 학교문화만들기, 인간관계접근법, 단일문화연구접근법, 다문화교육접근법, 다문화사회정의접근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이 계급 간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부정의한 착취에 저항

하고 이를 수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계급문제가 다문화교육일반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계급문제는 세계화시대 다양한 문화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문화를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 존재로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제 다양한 문화집단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문화다양성이 지구촌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교육은 지구촌의 차원을 고려하여 다문화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문화교육 앞에 지구촌이라는 형용사를 부여한 Bennett의 의도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는 동질적이거나 순수하기보다는 이질적이고 가변적이며 지배와 복종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다문화교육에서 사회정의 차원이 강화되어야 함으로 보여준다.

참 고 문 헌

출입국관리본부 통계자료

통계청 외국인 고용통계자료

김광익(1999).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개념과 연구방법",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 1-33.

부르디외, 삐에르.(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서울: 새물결.

서강식, 장원순(2010). 한국사회를 위한 다문화교육내용 체계화 연구.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신광영 외.(2003). 한국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서울: 한올아카데미.

양영자(2007),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올아카데미.

장원순(2001). 제7차 초등사회과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화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교육 제34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장원순(2006). "우리안의 차별과 배제: 일상적 삶에서의 다문화교육 접근법", 사회과교육연구 제13권 3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한스 피터 마르틴, 하랄드 슈만.(1997). 세계화의 덫, 서울: 영림카디널

Andre Semprini(1997). Le Multiculturalisme, 다문화주의: 인문학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비판적 해석, 이산호 & 김휘택(역)(2010), 서울: 도서출판 경진 pp. 162-192.

Banks(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pp.87-107.

Banks, James A.(2007a)." Multicultural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Goal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 Perspectives, James A. Banks, Cherry A. McGee Banks(ed), New

- York: John Wiley & Sons, Inc.. pp.3-30.(20-25)
- Banks, James A. (2007b)." Approaches to Multicultural Curriculum Reform",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 Perspectives*, James A. Banks, Cherry A. McGee Banks(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pp.247-269.
- Bauman, Zygmunt.(2013).Does The Richness of benefit Us All?, 안규남(역),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서울: 동녘.
- Bennett, Christine I.(2003).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pp.3-40.(31-34)
- Carl A. Grant & Christine E. Sleeter(2007)."Race, Class, Gender and Disability in the Classroom",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 Perspectives*, James A. Banks, Cherry A. McGee Banks(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pp.63-83.
- Semprini, Andre.(2010). *Le Muticulturalisme*, 이산호 외(역) 다문화주의: 인문학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비판적 해석, 서울: 경진.
- Giddens, Anthony.(2001). *Sociology*, 4th edition, 김미숙 외(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Samers, Michael.(2013). *Migration*, 이영민 외(역). 이주, 서울: 푸른길.
- Persell, Caroline Hodges.(2007). "Social Class and Educational Equality",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 Perspectives*, James A. Banks, Cherry A. McGee Banks(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pp.87-107.